2026 교회표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 (엡 4:3, 롬 12:11)

새문안교회의 창립정신(2) – 일치와 연합의 에큐메니칼 정신

사도신경 ..... 다함께

찬 송 ..... 219장 ..... 다함께

1.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자매라

2. 큰 은혜로써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한 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자매라

3.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자매라

4. 그 평화로운 거문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 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자매라

기 도 ..... 맡은이

성경봉독 ..... 요한복음 17:21 ..... 다함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삶 나누기

한 주간의 삶과 Q·T,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간단히 나눕니다.

새문안교회의 창립정신(2) – 일치와 연합의 에큐메니칼 정신

2026.10.11. 주일예배 설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드리신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0절). 곧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1절). 여기서 하나됨은 획일화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사귐으로 마음이 하나되고, 영혼이 하나되고, 한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픔을 함께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1절).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될 때 세상은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언더우드가 꿈꾸었던 하나의 교회

이 일치와 연합에 앞장섰던 사람이 새문안교회 창립자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는 장로교 선교사였지만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늘 함께 일했습니다. 성서와 찬송가를 번역하고, 기독교 단체를 세우며, 서로 영역과 공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갈라져서 사역하면 조선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더우드는 교파를 뛰어넘은 단일 개신교회를 꿈꾸었습니다. 1905년 장로교와 감리교의 여섯 선교부가 연합공의회를 결성했습니다. 교회의 이름도 '대한예수교회'로 정했습니다. 비록 본국 선교본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연합과 협력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1924년 9월 24일, 바로 새문안교회에서 장로교 대표 19명과 감리교 대표 17명이 모여 연합공의회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새문안교회 제2대 담임목사 차재명 목사가 초대 회장을 맡았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뿌리이며 새문안교회의 창립정신입니다.

※ 새문안교회의 창립정신은 교파의 차이를 넘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 사랑을!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강조하고, 어떤 이는 성령을 강조하고, 또 어떤 이는 봉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차이가 아니라 부르심과 은사의 차이입니다. 다름은 우리를 갈라놓는 이유가 아니라 서로를 채워 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일치해야 할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째, 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같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입니다. 셋째, 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이 본질에 일치한다면 신앙의 강조점이 달라도 형제요 자매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넘어 관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엡 4:15). 진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 진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하나됨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다툴 때는 언제나 그럴듯한 명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갈 5:19-20).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려 하는가, 내 신념과 체면을 지키려 하는가? 둘째, 나는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 뿐임을 인정하는가? 셋째, 상대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보았는가? 넷째, 나를 움직이는 것은 사랑과 화평인가, 두려움과 분노인가? 이 질문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좁아지지 않고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름을 더 이상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좁아지지 않고 넓어집니다.

결론: 선을 넘어 사랑의 다리를 놓읍시다!

우리는 갈등과 혐오, 분열이 깊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다른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을 넘어가셨습니다. 언더우드 역시 교파의 경계를 넘어 함께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나 자신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먹이고 살리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배부를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먹일 때 하나가 되고, 그 자리가 천국이 됩니다. 이제 새문안의 창립정신을 우리의 삶에서 이어가야 합니다. 다름 때문에 담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나눔

❶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0-21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사람들'과 그들을 위해 구하신 '한 가지'를 찾아봅시다.

(힌트: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도 다 ○○가 되어")

❷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요 17:21, 23). 나는 교회나 구역에서 서로를 품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따뜻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다툼과 갈등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예: 작은 오해와 갈등으로 관계가 멀어져 마음이 아팠던 경험,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돌보았던 경험,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힘을 모았던 순간)

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교파가 달라도 함께 일했습니다. 요즘 나는 가족이나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선을 넘어 사랑의 다리 놓기"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달 내가 먼저 놓을 수 있는 '사랑의 다리'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예: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서운했던 사람에게 먼저 안부 전하기, 내 주장보다 공동체의 화평을 앞세우기, 평소 교류가 없던 성도에게 먼저 다가가기)

❹ 그 외에 이번 공과를 통해 받은 은혜와 위로, 격려와 도전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